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① 07. ①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② 20. ①

1.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메타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②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메타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칸트의 의무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의무 의식에서 나온, 즉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③ 칸트는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 ⑤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죽음관에 대한 장자와 맹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변화로 보고, 삶과 죽음을 초연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장자는 죽음을 거부하라거나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③ 불교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④ 장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맹자는 죽음을 슬퍼할 대상으로 본 반면, 장자는 죽음을 슬퍼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4. 안면 인식 기술 허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안면 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 지능을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안면 인식 기술과 고도화된 인공 지능의 결합을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과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③, ④ 갑과 을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허용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의 ㉠에 들어갈 내용은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이다. ㉠에 대한 반론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이다. 따라서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②, ⑤ (가)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③ ㉠에 대한 근거 또는 ㉠에 대한 반론의 근거와 무관한 내용이다.

6. 기술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야스퍼스는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고, 기술을 공허한 힘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이 결정한 목적에 따라 활용된다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기술을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기술이 가치중립적으로 고찰될 경우, 즉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야스퍼스는 기술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입힐 수 없다고, 즉 기술이 인간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악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

7.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하기에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 모두가 시민 불복종을 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성립된다고 보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롤스에 따르면 안정적인 민주 체제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하는 행위이다.
- ④ 롤스는 공적 심의를 거친 법과 정책이어도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과 정책 중 부정한 법과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8. 음식 문화에 대한 장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공자는 음식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을 인격 수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장자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 ② 장자는 의로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였다.
- ④ 공자는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을 생명의 보존에만 두지 않고, 인격 수양에도 두고 있다.
- ⑤ 장자는 사회적 규범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9. 교정적 정의에 대한 베카리아와 칸트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형 이외에 살인에 대한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고 보고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ㄴ.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에 적절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은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ㄷ. 베카리아와 칸트는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본보기로 그 예방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들어 사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칸트는 사형을 비롯한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형벌이 본보기로 집행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이 형벌의 강도보다 형벌의 지속도에 달려 있다고 보면서도,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지속도만이 아니라 형벌의 강도에서도 나온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응보에 바탕을 둔 형벌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형벌을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본 것은 아니다. 형벌은 어떤 다른 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10. 자연에 대한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테일러, 을은 레오폴드, 병은 싱어이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고,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보고, 생명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 이외의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라고 비판하였다.

ㄷ. 테일러와 레오폴드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는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와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며, 인간은 다른 동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내의 인간과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보고, 인간은 식물을 포함한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싱어는 인간은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ㄹ. 테일러와 싱어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테일러와 싱어는 개체론적 입장으로서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레오폴드는 자연 자체의 선, 즉 생명 공동체 자체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전체론적 입장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테일러만이 아니라 싱어의 입장에도 해당한다. 테일러는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싱어는 도덕적 지위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게 부여한다. 그런데 동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에 포함된다.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ㄴ. 레오폴드만이 아니라 테일러의 입장에도 해당한다. 레오폴드는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를 우선하는 전체론적 입장이다.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 하나하나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개체론적 입장이다.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개체와 생명 공동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11. 노자와 석가모니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석가모니이다. 노자는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쟁의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연기(緣起)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ㄱ. 노자는 인의를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인의의 강조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ㄷ.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통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ㄹ. 노자와 석가모니는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ㄴ. 석가모니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고 보았다.

12.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프롬의 주장이다. 프롬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참된 사랑도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프롬에 의하면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다.

② 프롬은 참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낸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프롬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프롬은 사랑을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13.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대한 로크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ㄴ. 로크는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며,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시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ㄱ. 로크는 사회 계약 당시 개인은 자연권 중 일부의 권리만을 양도한다고 보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도 보장된다고 보았다.

ㄷ.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자연법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통된 자연법을 집행할 공정한 권력이 없어서라고 보았다.

14. 직업관에 대한 순자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순자, 을은 플라톤이다. 순자는 예(禮)에 따라 각자가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다른 구성원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순자는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으로 예를 제시하였다.

ㄷ. 플라톤은 국가는 세 계층이 각각 본분에 맞는 탁월성을 발휘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순자와 플라톤은 직분의 구분이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군주가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5. 분배적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차이에 따른 산물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개인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도 그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더 큰 재능의 소유자가 불우한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면 그 재능으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ㄷ.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ㄹ. 노직은 개인 간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노직과 롤스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을 인정한다.

16. 엘리아데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비종교적 인간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도 있고 조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② 엘리아데는 인간이 성스러움을 만들어 낸다고 보지 않았다.

③ 엘리아데는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재가 단 한 번 드러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든지 드러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엘리아데는 돌이나 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돌이나 나무가 그 자체로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돌이나 나무를 통해 성스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7.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목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목자, 을은 순자이다.

ㄴ. 순자는 옛 성왕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예법에 맞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옛 성왕이 군자와 소인 모두 음악을 더불어 즐기도록 우아한 음악을 제정하고 이끌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목자는 분별적 사랑인 별애(別愛)가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목자는 음악이 백성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음악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18.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원조의 의무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성을 지닌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원조할 수 있는 경우에 원조해야 한다는 조건부적 의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싱어는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원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조의 차단점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제도 개선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롤스는 원조의 최종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두었다.

19. 소통과 담론의 윤리에 대한 원효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모든 종파와 사상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심을 토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각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원효는 자신만의 입장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원효는 모든 의견이나 입장을 일심을 토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원효는 특정한 하나의 입장이나 방안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다.
- ⑤ 원효는 다양한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 통일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역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경쟁보다 활발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통일을 통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을 통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남북한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따라서 ㉠이 옳은 위치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모두 옳은 위치가 아니다.